

## 베이비붐 세대의 삶

## 진단과 활로를 찾아서

#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 베이비붐 세대의 뜻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이 끝난 직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이 시기에 태어난 인구는 816만 명으로 당시 총인구의 16.8%를 차지하는 대규모 인구집단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특정시기의 공통된 사회적 경향을 일컫는 현상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베이비붐 세대의 경향과 사회적 기여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인적 자산을 육성했다. 그들에게는 국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었고 사회 전 분야에서 대세를 이루는 존재로서의 존재감도 충분했다. 즉, 그들은 국가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었으며 땀을 흘리며 주어진 역할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경제용어에 '연착륙' '경착륙'이 있다. 연착륙은 착륙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내려앉는 것이고, 경착륙은 착륙의 충격을 그대로 받으며 부서질 듯 내려앉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그 동안에 무거웠던 일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과 같은 연착륙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 내동댕이 치듯이 바퀴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할 충분한 여유도 없이 동체착륙하는 비행기와 같이 경착륙의 위기에 내몰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봉양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우리 사회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효자로 자책하던 때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족관계로 믿었다. 가족 안에서의 이런 관행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끝이 나는 것 같다. 아니 인식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부모를 직·간접으로 모시는 세대이다. 그런데 이 관행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에게서는 도태된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봉양과 자신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심지어 100세를 바라보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자녀교육과 자녀결혼, 그들의 살림나기조차 베이

비붐 세대의 몫인 셈이다.

이른바 '끼인 세대'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가족을 위하여, 나름대로 조국근대화 사명감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 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현실 조명과 활로 모색을 위한 기획

늙음 혹은 은퇴가 도태의 대명사가 될 수는 없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사람들이 선뜻 가지 않으려는 자리라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만 나이가 들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마음도 젊고 몸도 청년 못잖은 베이비부머가 적잖다. 그러나 나이는 이미 60을 훌쩍 넘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그냥 뭉뚱그려진 하나의 객체집합체로 큰 덩어리로 보고 있을 따름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생을 너무 빨리 소진했고 이 사회에서 너무도 빨리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도생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어 가고 있다. 아파트 경비실, 빌딩 바닥, 지하철 화장실, 환자의 침대 옆으로 이도저도 안 되면 노숙자로 숨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을 넘게 살아갈 것이다. 아직 인생의 3분의 1이 남아있다. 베이비붐 세대 자신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진 자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청장년 세대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지적거리로 존재로 치부해 버리거나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아버리는 존재로 경계한다면 이 사회의 동력은 떨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은 증폭되어 커다란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백세시대를 살아야 할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에게 현실에 대한 대처와 앞날에 대한 대비에 필요한 일일 것이다.

성문영 기자(sung-goodnews@hanmail.net)

##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 재개

※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개방

4월 25일부터

자율프로그램  
동아리  
물리치료  
안마서비스



### 노년 사회화 교육

개강: 5월 16일부터  
접수: 5월 9일부터



### 셔틀버스 운행

하루 3회  
9시  
13시  
15시



### 식당 운영

5월 둘째주 (예정)

문의 T.033-430-8700

☞ 노년사회화교육: 기존 수강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CONTENTS



02 - 홍천 귀농·귀촌의 참 맛

03 - 노인의 여가생활

04 - 홍천읍 행복 나눔 이야기

04 - 주식회사와 주식

05 - 지역소식·평생 학습

06 - 단체소식

07 - 인생칼럼·생활칼럼

08 - 사진으로 보는 공작산 수타사

08 - 보도자료





**홍천 귀농·귀촌의 참 맛****당신이 귀농·귀촌의 맛을 알아!**

“당신이 귀농·귀촌의 맛”을 알아!!! 아내의 큰소리가 찻잔째 울립니다.

이 기막힌 귀촌 부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귀촌해서 전원생활을 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농진청·농경연의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귀농·귀촌하기로 마음은 먹고 실제로 준비 기간은 <3년 이상이 21%, 3년 미만 14%, 2년 미만 19% 소수점 절삭> 절반 이상(55%)이 1년 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준비 기간이 없었다(9%)’는 비율은 매우 낮아 귀농·귀촌하려는 분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부족(47.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농 기술 습득(27.4%)’, ‘농지 구입(25.5%)’, ‘생활 여건 불편(23.8%)’, ‘지역 주민과의 갈등(16.1%)’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도 우리 남편은 대충 알아보고 “시골 가서 살자!”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시골 가서 귀농·귀촌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매일 조르지만, 순순히 따라나설 용기 있는 부인이 어디 그리 흔합니까?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막무가내로 귀촌하여 “전원생활을 하자!” 아내는 “그렇게는 못 한다!”를 놓고 밀고 당기다 아내는 마지못해 귀농·귀촌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시작한 귀촌 5년 차 아내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상담자 :** 귀촌하신 지 몇 년입니까?

**귀촌인 :** 처음 1년은 주말만 왔고요, 2년 후부터는 매일 여기서 5년 생활했습니다.

**상담자 :** 귀촌해서 있었던 과정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귀촌인 :** 처음 남편은 자신만만해 하며 귀촌 생활 3년간은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 집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며, 텃밭도 일구는 시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주말이면 지인들을 불러 바비큐 파티, 심지어는 노래방 기기까지 설치해 놓고, 한창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상담자 :** 재미있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귀촌인 :** 아니~ 귀촌해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지...

거의 매일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남편이 신나 있을 때 저는 뒤치다꺼리하느라 몸은 지쳤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담자 :**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귀촌인 :** 남편은 3년쯤 지나고 나니 싫증을 느끼더라고요... 집을 수리하는 것도, 농사일도 재미없어하고 너무 갑갑해 하며 자꾸 서울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고비더라고요. 잠시 귀촌인 아내는 약간의 눈시울을 붉히면서...

**귀촌인 :** 남편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멀쩡한 집을 부수었다가 다시 짓고 정원 나무를 갈아 치우는 등 꼭 돈 들어가는 사고만 치더라고요.

이제 아내는 귀촌 생활에 익숙해져 도시에서는 단 하루도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귀촌 생활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텃밭 가꾸며 그렇게 3년 정도 지내다보면 쉽게 싫증이 날 수 있지만, 그때쯤에는 무엇인가 제대로 된 귀농할 일을 찾지 못한다면 쉽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귀농·귀촌 생활을 계획할 때에는 적어도 약 5년 후의 앞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3년은 준비하며 살아보아야 제대로 된 귀농의 재미도 쏠쏠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고 불편한 것들도, 조금만 더 찾아보면 재미난 전원생활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귀촌 생활을 서툴렀던 남편이 집 짓고 정원 만들기로 3년을 보낸 이후에는 막상, 할 일 없어 방황하게 되는 것도 5년 이후

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후의 전원생활에 소극적이었던 아내는 이것저것 일을 만들어 행복한 전원생활을 꾸려나가며 이제는 아내가 귀농을 준비하려고 땅 500평을 준비해서 특수 작물을 재배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 없이 귀농·귀촌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귀농·귀촌 이후 3년까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재미있는 전원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 5년은 살아야 귀촌의 제 맛을 느낄 수 있고, 성공적인 귀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귀농·귀촌은 5년후의 앞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준비  
처음엔 재미없어도 새로운 일 찾고 배우는 과정 필요**

귀촌 아내는 이렇게 남편이 귀촌에 흥미를 가지지 못해 갑갑증을 느낄 때, 반대로 귀촌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즐기는 3년 동안 철저하게 귀촌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에 살다 먼저 귀농·귀촌한 분들과 친구가 되고, 언니 및 선배활동가로부터 재미있는 시골 생활의 방법들을 전수받았습니다.

홍천군의 계절에 걸맞게 봄, 여름에 심은 작물에서 수시로 수확하는 과정을 메모하며 적절한 시간에 맞춰 농작물을 심는 것과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033-430-2581) 동아리 활동으로 기타와 장구를 배우고, 허준 약초학교 강좌를 수강하며 야생화에 관심도 가지고, 텃밭에 특수 채소를 기르고, 지난해에는 난생 처음으로 된장도 담그고 평생의 꿈이었던 배추를 직접 심고, 김장김치를 담그는 행사까지 직접 해 보았습니다.

또한, 매 1월 6일이면 홍천 재래시장에 방문하여 시골을 보는 재미와 홍천군청에서 수시로 개최하는 문화강좌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는 재미도 쏠쏠 하더라고요.





## 노인의 여가생활

## 여가활동은 생활전반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재충전 기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봄이다. 봄은 보기 위함이고 ‘봄봄’은 보여줌과 보고자 하는 열망이 겹쳐나 ‘봄’이다. 이 땅 배달겨레의 고속도로가 한 때 달리는 흥 마당이었다. 그 비좁은 버스 안에서 먼 산행을 이은 노독(路毒)이라 상당히 피곤할 텐데도 좁은 복도에서 의자에 기댄 채로 한 두 시간 흐드는 군무는 가히 경탄스러울 만하다. 무엇이 이리 나를 신명을 나게 만드는 일인지 나도, 내 자신도 잘 모른다.

어쨌든, 흔들고 노는 것. 그것이 인간영혼을 자유롭게 하는것인가 보다.

과학적으로도 몸을 흔들게 되면 뇌파가 안정되고 이는 양질의 대뇌호르몬을 분출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신나는 일임은 분명히 확실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요의 가사 몇 구절을 소개한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첫 번째 노래는 1970년대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발표된 ‘새마을 운동’, 두 번째 노래는 당시 권력과 최극단에 서있던 저항시인 김지하의 시에 1980년대에 곡을 붙인 ‘타는 목마름으로’이다.

각각 근대화·민주화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시대적 소명이 처절하게 묻어있는 ‘진지한’ 곡들이다. 1960, 70년대 유년시절을 겪으면서 단체소풍 가서 ‘새마을 운동’ 부류의 ‘건전가요’ 한 곡 정도는 불러줘야 뽕뽕한 어린이였고, 1970, 80년대 대학시절을 겪으면서 술 자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 한 곡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 고민하는 청춘으로 통했다.

하지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는 웬지 우리 정서상 진지하게 부르기에 민망한 감이 있다. 구전되어 오던 것을 1950년대 개사/곡을 붙인 것으로 1970년 김영일 작사 / 김성근 작곡 가수 송춘희가 부른 이 곡은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퇴폐가요’로 낙인 찍혀 금지당해야 했다.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무렵에는 ‘가세가세 일터로 가세 새마을에 앞장서 가세’라고 개사되어 불려졌고, 이후 80년 신군부시절에는 아예 금지곡이 되어 버렸다. 사회악을 일소하겠다고 삼청교육대를 만든 그들 입장에서 놀이는 아마도 ‘탱자탕자 놀고먹는’ 타락

으로 이해되었나 보다.

이렇게 같은 가요지만 신성한 노동을 찬양하는 ‘건전가요’나 시대적 고민을 토해내는 ‘민중가요’와 달리 ‘놀이판’ 딱지가 붙은 ‘퇴폐가요’들이 전하는 말은 한마디로 “일하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놀아보자”는 얘기다. 어느 세대에서도 환영 받기 어려운 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이 곡이 21세기 들어 젊은 트롯트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2017년 영화 구세주(최성국, 김성경 주연의 코메디 영화)의 삽입곡으로까지 쓰였다. 금지곡은커녕 기성세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젊어서 노세, 멋진 미래 위해!”라고 감칠맛 나게 불러내는 이 젊은 가수의 선동은 20대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 무슨 일인가! 늙어지면 못 노니 미래를 위해 젊어서 놀자니!

삶의 진지함을 조롱하는 듯한 이 놀이의 선동. 40, 50대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고의 변화는 어찌 보면 60, 70대가 40, 50대를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성장이나 분배냐의 대립, 국가의 영광이나 개인의 인권이냐의 대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다.

요컨대 과거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 진지함에 대한 놀이의 반란이다. 근자에 보이는 보수와 진보

##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세대, 진정한 의미의 여가에 몰입할 때

를 모두 당황하게 만든 새로운 잠재적 정치세력의 출현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대의 눈에는 기성세대의 근엄함 뒤에 있는 경직과 위선은 한낱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사회의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에 이은 새로운 ‘문화 세대’의 아이콘, ‘놀이’이다. 과거에 노는 것은 퇴폐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관념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천진난만한 사고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놀던’ 아이들이 ‘범생이’들의 부러움 속에 시장의 한복판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10대의 이상과 장래희망은 이미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아닌 가수, 배우, 운동선수이다.

삼국지 영웅 조조의 아들 시인 조식은 “하루를 더 살아도 부족하고, 하루를 덜 살아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할 만큼 세상이 좋아졌다고 느끼게 된 것은 보릿고개를 넘기고 급속한 산업화로 농사짓는 것도 편리해지고 소출이 늘어 생활형편이 퍼지면서 개량주택에 쌀밥과 고깃국, 좋은 옷에 전화, 텔레비전, 각종 가전제품 등 문명의 이기에 의한 문화

생활, 관광, 여행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다.

여가·레크리에이션(餘暇·leisure and recreation)이란 그리스 시대에는 높은 진리를 추구하는 명상(contemplation)이라는 의미였고, 잉여 시간, 레크리에이션, 휴양, 스포츠, 즐거움, 오락 등의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이 있다. 여가는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인 활동’, ‘자유로운 마음 상태’ 등으로 정의된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는 ‘신선하다’ 또는 ‘재충전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Recreatio’에서 생겨났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레크리에이션은 산뜻하고 차분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의미한다.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기능 수준, 심리적 상태, 사회적 역할로 나눌 수 있는데, 노인의 여가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31.0%가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해 만족하고, 19.1%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여가문화생활을 보면, 주말·휴일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이 1위였다. 15세 이상 국민들은 연평균 17.2개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일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꼽은 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산책 및 걷기’, ‘잡담/통화/문자하기/문자보내기, 쇼핑/외식, 친구 만남의 순이다.

위 자료를 요약하면 노인의 70%가 여가생활에 불만족스럽고, TV에 기생하듯 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연령대는 유아와 노인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수 천 년 전 그리스인들이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인 활동’, ‘자유로운 마음 상태’는 높은 진리를 신선하게 재충전한다니 얼마나 멋진가?

앞글에서 보았듯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는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과 질병, 산업화 민주화를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영웅들이다. 인구 5천만 이상에 소득 3만불인 7개국중 제국주의로 부를 축적한 나라가 아닌 곳은 대한민국 뿐이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여가에 몰입할 때이다.

김은기 기자(johnbbun12@naver.com)



**홍천읍 행복 나눔 이야기****가가호호 방문, 직접 상차림 생신 축하와 만수무강 기원**

최근에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홍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연중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4월 6일(수) “효 나눔 칠순잔치”를 추진하였는데 강변사철탕(대표 김영순)업체의 재능기부 및 장소제공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상차림을 하는데 더욱 의미가 있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해 민간위원장(김명숙)은 떡 케이크를 손수 준비해 주었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어르신에게 공공위원장(한인용)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9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상차림을 하면서 생신 축하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상차림과 축하 선물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감사의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으며 축하자리에서 선물로 받으신 점퍼를 바로 꺼내 입으시고 기뻐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협의체 위원들도 감동의 순간이 연속되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인용 홍천읍장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매년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항상 최일선에서 활동해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김명숙 민간위원장은 협의체위원들이 가정방문하여 전달만 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음식조리를 하여 전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으며,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해 주신 홍천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홍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지원분과와 사례관리분과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일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에 기다리던 복지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알려주고 복지 지원을 촘촘하게 이어주는 툴루랄라 즐거운 나의 인생,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버이날을 맞아 100여명의 어르신에게 반려식물 나눔 사업으로 복지 상담을 할 예정이며 특히 반려식물은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께 성장하는 식물과 이야기도 나누며 마음의 안정감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우울했던 마음을 잊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며 그 정신세계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셔서 올해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두뇌야 놀자”는 건강, 문화프로그램으로(치매예방 퍼즐놀이

등) 경로당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6월에 진행되는 행복나눔 인생사진 사업은 8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홍천청년회의소의 사진 재능 나눔, 홍천군 미용협회의 미용 재능나눔으로 진행한다.

매년 복지재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실현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홍천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홍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인이 살기좋은 홍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방긋방긋 웃는 아이들과 피곤함도 잊은 채 즐겁기만한 아이들 모습에 묻혀 살던 그 시절 뒤편 그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또다시 사랑스런 아이들과 웃음꽃 피울 때쯤이면 우리는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어 외로움을 스스로 느끼고 어느새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혼자가 되면 더욱 그러하다 해서 어르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의 외로움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주식회사와 주식****자본시장의 멋진 발명품 : 주식회사와 주식**

시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고대 자급자족경제에서는 시장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물론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에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거나 잉여생산을 소유한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없다면 역시 시장 형성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장은 자발적 교환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통, 운반, 통신시설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분업에 의한 생산성이 제고되며, 인구가 밀집되는 도시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발전해왔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정기시장은 정기시장으로 이는 다시 상설시장으로 발달해왔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의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초기의 주식회사와 주식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주식의 기원은 멀리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퍼블리카니(Publicani)’라는 조직은 오늘날의 주식에 해당하는 ‘파르테스’를 통해 특정 소유권을 다수의 사람이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법인체였다. 기록에 의하면 임원을 선임해 경영을 위임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파르테스’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를 공시하는 현재의 ‘주주총회’도 개최하였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최초 주식회사라면 1602년에 세운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를 들 수 있다. 1492년 칼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후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지역에 관심을 보였다. 서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경쟁하였고 이 식

민지를 통해 유럽에 희소한 상품들인 향신료나 비단을 들여오려는 생각이었다. 네덜란드가 교역의 중심이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수가 스페인에 거주했는데 1492년 스페인의 ‘알함브라 칙령’에 의한 유대인 추방령으로 그들이 선택한 나라가 네덜란드였다. 주지하다시피 유대인은 상업과 금융에 밝은 민족이었으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교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주식회사’라는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인도의 향신료, 동남아의 비단을 구하러 출항하는 배에 대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금액을 다수로부터 모을 수 있었다. 투자한 금액만큼의 증서는 물론 오늘날의 주식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래소 풍경은 어땠을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마우스 클릭하여 주식을 거래하지는 않았다. 아프리카나 인도, 동남아로 출항하는 상선에 투자한 사람들은 5년 후나 10년 후에 돌아올 상선에 대해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다. 투자한 상선이 풍랑에 난파되어 회항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이 받은 증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항구에 나가 그들이 투자한 상선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회항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증서를 팔기를 원했고 회항에 성공 희망을 본 사람들은 증서를 사기를 원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장은 형성되었을 것이다. 당시 항구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고래고래 곱함을 지르고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온갖 수신호가 난무하는 북새통 시장의 풍경이 연상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TV 뉴스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의 종잇조각과 유선전화로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1609년에 세계 최초의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를 세웠다.

이제 사람들은 불특정 시간대에 항구에 나가 증서를 바꿀 필요 없이 거래소에 가서 투자할 수 있었다. 특정 시간에 거래소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상단(商團), 지금의 기업에 해당하는 배에 투자하고 일정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동인도회사의 성공에 힘입어 1621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위주로 교역을 하는 서인도회사가 출범하였다. 네덜란드는 뉴욕 일대를 식민지 삼아 환전소를 설치하는 등 세계적 교역을 가능케 하였다. 향후 교역의 시계추는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마치 뉴욕의 이전 이름이 뉴암스테르담에서 지금의 뉴욕(New York)으로 바뀐 것처럼. 물론 금융의 자본도 암스테르담에서 영국의 런던으로 옮겨지게 되며 이는 금융 자산의 탐욕으로 인한 버블의 붕괴가 어떻게 자본 시장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 지역소식

## 제11회 생활체육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난 2022년 3월 20일 강변그라운드골프장에서 제11회 생활체육그라운드골프대회가 흥천읍, 남면, 서면, 영귀미면, 내촌면 등 선수 임원 1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라운드골프의 같고 님은 솜씨를 마음껏 자랑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읍·면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묘기를 부릴 때는 우리와 같은 박수로 상대방을 칭찬해 주고 격려하는 참 모습을 보였다.

제11회 생활체육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는 허필홍 군수를 비롯하여 흥천군그라운드골프 협회장(노승철), 상임부회장(강정식) 흥천군 그라운드골프 이사진 전원이 함께 자리를 빛내었으며 그리고 흥천군 생활체육회장(박상복)은 금번 대회를 통하여 그라운드골프로 인해 흥천군민 모두가 도량 치고 가재 잡듯이 어르신들 몸에 맞는 그라운드골프도 치시고 건강도 지키시며 좋겠다고 하였다. 경기 규칙과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허후기 경기이사께서 경기 규칙과 개인전 및 단체전 그리고 심판들의 정해진 타수의 순위 등 엄격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전달했다.

#### 흥천군민 앞에서는 코로나19도 꼼짝 못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체육인들의 활동이 침체되어 중단을 거듭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회적거리두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단체전 시상식

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도 저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제 11회 생활체육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는 개인전 1위는 내촌면, 2위는 흥천읍, 3위는 서면이 각각 차지하였으며 단체전에서는 1조부터 6조까지 6개조가 우승을 하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였고 함께 상장과 부상으로 꾸민 상품을 수상했다.

선수들의 기량이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좋은 타수를 내어서 오늘 경기에는 15m, 25m, 30m, 50m 각 2홀씩 총 8개홀이나 가장 긴 50m에는 단 한번으로 홀에 공이 들어가면 홀인원으로 홀인원 상이 주워지는데 오늘 대회에는 5명이 50m에 홀인원 하여 상금을 타는 이변이 생

겨 많은 동호인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라운드골프협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사무실 전화 (☎435-0707)로 연락하면 된다.

#### 화촌면민들도 그라운드골프 창단

화촌면민들도 흥천군그라운드골프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3월 창단식을 가졌으며 많은 동호인이 그라운드골프 저변확대에 일조를 하며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흥천군 그라운드골프 협회에서도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회장(노승철)도 하였다.

또한 흥천군그라운드골프에서는 2022년 5월 6일 제 7회 새마을금고 이사장배를 비롯하여 6월 4일에는 흥천군그라운드골프 협회장배 등 크고 작은 각 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번 7월, 8월에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며 흥천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골프의 저변확대에 큰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시대는 어르신들이 100세를 살아가는 건강시대이며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라운드 골프를 권장한다고 그라운드골프협 관계자는 밝혔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 평생 학습

## 천아트 수업

##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평생 학습을 찾아서

흥천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 실현을 위해 전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인 평생 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생 학습이란 평생에 걸쳐 학습 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자기 취향에 맞게 선별하여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취미 생활이나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천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초 실버 요가, 노래 교실, 건강 마사지, 천아트, 꽃차, 종이 접기, 기타, 운동 재활 트레이닝, 리코더, 어반 스케치, 일러스트, 전통 사찰 음식, 몸살림 운동, 풍물, 전통 서각 등 19개의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단체 수업을 제외하고 강사 포함 10명 미만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 기사로 “천아트” 수업에 대해서 알아 본다. 수업은 매주 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장소는 흥천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천아트는 작년 3급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로 이루어진 2급 과정과 신규로 3급 과정을 운영하여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으로 과정 이수후



◇천아트 수업 모습과 작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이다.

평균 연령 60세로 귀농·귀촌한 미술에 관심이 있는 여성분이 대부분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 11월에는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개최 예정이다.

천아트란 요즘 새로운 장르의 취미 과정으로 실용미술이며 실생활 어디에서나 쉽게 응용이 가능하며, 기초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배움이 가능하다. 그리

고 나무, 플라스틱, 유리, 기와, 돌 등에 특수 물감으로 일상 생활 소품들을 만들 수 있고, 물에 씻어도 상태를 유지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무채색의 집안을 꽃그림으로 화사하게 변화 시킬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집중하여 심신의 안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수업은 2급 과정으로 이미 천아트를 1년 동안 경험한 수강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차분하게 수국을 그리는 붓놀림이 능숙해 보였다.

수국 쿠션 그림은 2가지의 수국 기법을 3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서로 벤치 마킹도 하며 수업 내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농촌으로 귀농·귀촌하여 시골에서는 도시에서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질 좋은 교육들이 도시보다 더 다양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찾아보면 교육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주변에 산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사람은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라는 교육의 중요성과 전 생애 평생 동안 꾸준한 교육을 통해 본연의 자신으로 다시 태어 날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



## 거리두기 해제 맞춰 ‘멸치판매 사업’ 시동



◇멸치 분류 및 포장 작업 모습.



◇밭농사 봉사하는 모습.

홍천군 북방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순원)는 지난 4월 12일 각리 회장들 전원이 ‘멸치판매 사업’에 참여해 멸치 분류 및 포장 작업을 했다.

그간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새마을부녀회 활동도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에 시동을 걸게 되었다.

홍천군 새마을부녀회는 지리, 가이리, 새우, 국멸치를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장학사업, 김치 나눔 봉사 등을 펼쳐왔는데 북방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에 적극 앞장서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외에 지방선거 출마 예상후보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기를 더했다.

북방면 새마을부녀회는 북방면 20개리에서 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순원 회장

이 회를 이끄는 박순원 회장(사진)은 상화계리 회장을 3년 역임한 후 북방면 회장을 맡아 5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

박순원 회장은 본인 사업을 하면서도 다년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봉사한 노고를 인정받아 군수 표창, 국회의원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농촌의 노령화로 봉사자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속에 각 리 부녀회장 자리도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며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별 특성과 나눔 봉사의 다양성을 터득했다. 전임 회장님들한테서도 좋은 점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북방면 리별 회장은 상화계리 정영애 회장, 중화계리 이옥남 회장, 하화계리 최의영 회장, 하화계리 권태순 회장, 북방1리 윤금자 회장, 북방2리 양영옥 회장, 성동1리 이재금 회장, 구만리 김숙 회장, 노일리 유병숙 회장, 장항리 김혜자 회장, 원소리 김영순

회장, 본궁리 박춘녀 회장, 역전평리 이은희 회장, 도사곡리 임경순 회장, 소매곡리 김연수 회장, 부사원리 이은자 회장, 능평리 이슬향 회장이다.

이 가운데 올해 7명의 회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3년째 리 회장을 맡고 있다는 한 회원은 “〈우리 함께〉라는 친목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공유하며 ‘특별한 사업계획이 아니라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명제로 뭉쳐 있다.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북방면은 춘천과 지경을 나누는 호조군으로 의료기업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 구만리 역전평리 방면으로는 골프장 등 유원지 관광지가 펼쳐지고 있어서 홍천군의 보고로 변모하고 있기도 하다.

북방면은 강재구 공원과 함께 무궁화 수목원이 조성되어 ‘전국 제1의 놀이터’를 추구하는 홍천군의 안보 및 힐링의 명소이기도 하다. 이제 북방면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때맞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 “불편하신 시어머니 수발하러 귀촌 새마을부녀회 활동으로 북방면에 정붙여”



◇이슬향 총무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요양해드리려고 5년 전에 북방면으로 왔다는 이슬향 총무(사진)는 능평리 회장을 겸하고 있다.

요양원을 마다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북방면에 정착해서 수발해 드린다고 한다.

홍천군에서는 외부 도시로부터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홍보하고 있는데 이슬향 총무는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을 통해서 홍천에 정이 들어간다.”고 했다.

효부라는 칭찬에 “친정어머니도 수발들어 드렸고 지금은 시어머니를 요양해 드린다. 내가 편하다고 하신다.”며, “그러던 와중에 새마을부녀회에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과 함께 건축업을 하다가 회장님 권유로 중책을 맡았다. 회장님과 회원들이 친근하여 이 고장이 낯설지 않다. 새 마음이 생겼고 새 친구를 얻었다. 새록새록 홍천에 정이 든다.”고 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의 창궐로 모든 사업들이 힘겨웠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풀 깎기 봉사’ ‘도로변 화단 조성 봉사’에 회원들이 솔선 참여하여 아름다운 북방 만들기에 동참했다.

과거의 새마을 운동이 들불처럼 퍼지며 전국에 메아리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각 리별 면별로 조용한 가운데 내 고장 가꾸기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방면 새마을부녀회에서 2022년도에 할 일은 많다. 리별 회장단을 재편성하고 단합에 주력하며 북방주민의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귀농·귀촌·귀향 희망자들이 북방면으로 전입하도록 새마을 정신으로 봉사에 전력하도록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 건강 놀이터’라는 말에 매혹되어 북방면을 둘러보다가 전입을 결심했다는 한 주민은 “산과 강이 적당히 어우러지고 인심 좋은 고장이다. 다른 친목회 보다 봉사하며 친목도 다지는 새마을부녀회가 좋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됨에 맞춰 북방면 새마을부녀회의 봉사활동은 생기를 띠고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멸치판매 사업은 주문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익금은 ‘김치 나눔 봉사’의 준비금으로 사용된다.

각 부락 별로 파악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새마을 정신은 퍼져 나가고 있다.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길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한 행동반경을 가지고 소통과 흔적을 남기며 생겨져 이어지고 있다.

길은 동물이 움직임으로서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움직이지 않고, 흔적도 형상도 없는 길도 있으니 움직이는 몸이 만들어내는 길과, 마음의 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길은 사람들이 정말 자주 쓰는 흔한 말이며 순 우리말이고 한자를 쓰기 전부터 길이라고 했다한다.

도로(道路)란 이름의 사람이 다니는 길은 땅위에는 고속도로에서부터 산속

오솔길도 있고, 기차가 다니는 철길까지 수 없으며, 비행기로 다니는 하늘길, 배로 다니는 뱃길 등으로 세계와 서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움직이며 발자국을 남기는 길 이름에는 질러가거나 넓은 길보다 돌아가거나 좁고 험한 길에 붙여진 이름이 훨씬 많다.

지름길은 험준한 지역이라도 바로

자드락길, 돌이 많이 깔린 돌서덜길이나 사람의 자취가 거의 없는 나무꾼이 다니던 희미한 자욱길, 강가나 바닷가 벼랑의 험한 벼룻길,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뒤 아직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솟눈길도 있으니 아마도 임의 첫 발자국을 기다리는 길도 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토끼 길도 있고, 연어같이 고향

다. 내가 가야할 길을 간다거나 하는 표현을 보면 인생의 길은 삶에서의 방법이거나 삶 그 자체가 아닌가 싶다. 불교나 유교, 천도교 등 종교도 동양 사상에서의 공통적 이념도 도(道)라고 태권도, 유도, 궁도, 검도 등의 운동도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 도(道)라 부르는 길이다.

사람은 평생 길 위에 있다. 누군가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어떤 이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누구는 우직하리만치 한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가 하면, 고생길을 만날 수도 있는가 하면, 꽃길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으며, 탄탄대로가 있으면 막다른 골목도 있다. 세상에 같은 길은 없다. 우리의 발과 마음이 가는 길이 삶이고, 인생 또한 곧 길이다.

그 누구와도 길에서 만날 수도 있는 인연이고, 함께 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고, 나만의 길을 가면서, 길 위에서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 길(道)과 길(路)

질러가서 가까운 길이고, 빨리 갈 수 있으니 아마도 축지법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듯 하며, 힘들지 않게 편한 지형의 길로 돌아가는 예음길은 예둘러가는 길이며, 요즘 유행하는 돌레길도 있다. 집 뒤편의 뒀안길,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고샅(길), 꼬불꼬불한 논두렁 위로 난 논틀길, 밭가로 난 밭둑길, 거칠고 잡풀이 무성한 푸서리길, 좁고 호젓한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 휘어져 먼 앞뒤가 잘 안 보이는 후릿길, 낮은 산비탈 기슭에 난

을 다시 찾아오는 귀향길도 있다. 길이란 단어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여행이며 철학의 의미고 몸의 구속을 풀어 마음의 자유를 준다. 도로나 거리가 주는 어감과는 완전 다르다. 길은 단순히 사람들이 밟고 지나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길이라고 표현한다. 정도(定道)라고 하는 바른 길이 있고, 비도(非道)와 같이 바르지 못한 길도 있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

생활칼럼

# 핑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때고...

어느덧 빨래방에 출근한지 석 달째 접어들었다. 오 늘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로 몇 날 며칠째 보지 못했던 몇몇 팀원을 모두 볼 수 있는 날이라 남다른 기분으로 출근을 한다. 오늘따라 차에서 흘러나오는 모 차트 협주곡이 한결 가볍고 경쾌하게 들린다.

퇴직 이후 주로 집과 그 동안 알고 지내던 가까운 이웃, 학교 친구들 등 좁은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흥천군노인복지관에서 모집하는 노노 케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 이후 나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한 달 동안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니 사사로운 개인 적 업무 처리에도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인다. 비록, 간단한 업무처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곤잘 자주 쓰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달 찾아오는 월급날에 손자, 손녀에게 선심을 쓰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우리가 살아가는 고장, 흥천에서 새로운 이웃을 만나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소소한 일을 해 나가니 약간의 긴장감도 생겨난다.

팀원에 속해 있는 동료어르신과 함께 일하며 그 동안에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터라, 우리고장의 흥천지역 다양한 곳에 돌아다니는 것도 또하나의 새로운 즐

거움이다.

오늘은 또 어느 지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겨서 어떠한 새로운 풍경을 접하게 될지 잔뜩 기대감이 몰려든다.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우리 마을의 풍경을 글과 사진으로 메모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는대로 사진을 정리하고, 또 다시 기록하며, 옛 사료들을 찾아보며 사라져 버리기 전에 정리해 두고 싶은 새로운 일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

행복나눔빨래방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매번 조심스럽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약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나다보니, 내게 다가오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우리의 이웃이 참 소중한 귀하다 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몸소 느낄 수 있다. 불편한 환경속에서 하루하루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도 꾸준



히 이어져야겠다는 사명감도 든다.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단한 월척인 것임이 분명하다. “핑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때고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새삼 실감이 간다. 같이 일하는 우리 C조와 빨래방 동료들의 파이팅을 기대해 본다.

박호관 기자



## 사진으로 보는 공작산 수타사

## 물과 흐름을 주제로 하는 수타사

## 불기 2566(2022)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로  
번뇌와 무지로 가득한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길을 상징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수타사 연등



◇해질녘 수타사



◇가을 수타사



◇수타사 연지

(사진출처 : 공작산 수타사 중무소)

## 복지관 소식

- 홍천실버신문 기자단 5월 월례회의
  - 일시 : 2022. 5. 18(수) 16:00
  - 대상 : 실버신문 기자단 8명
  - 내용 : 익월 실버신문 원고 주제 논의 및 공지사항 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5월 월례회의
  - 일시 : 2022. 5. 26(목) 15:00
  - 대상 : 생활지원사 50명, 전담사회복지사 3명
  - 내용 : 사업 진행 의견 수렴 및 공지사항
- 실버신문 기자단 기자양성교육
  - 일시 : 2022. 5. 10:00~12:00(매주 금)
  - 대상 : 실버신문 기자단 8명
  - 내용 : 실버신문 취재 및 원고작성법 교육
- 실버신문 기자단 기자모집(상시)
  - 대상 : 60세 이상으로 신문 기사 취재에 관심 있는 자
  - 내용 : 홍천관내 소식취재, 원고작성, 편집 회의(월 1회)
  - 문의 : ☎033)430-8718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어르신의 여가활동 및 각종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전면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노인인식개선캠페인슬로건 &  
5행시 공모전

## 안내사항

## 참여대상

홍천지역 주민 누구나

## 모집기간

2022.04.25(월) ~ 05.31(화)

## 공모분야

슬로건(표어) / 5행시 공모전

## 시 상

- 대상 (상금 100,000): 1명
- 최우수상 (상금 각 50,000): 슬로건 4명, 5행시공모전 4명
- 우 수 상 (상금 각 30,000): 슬로건 4명, 5행시 공모전 4명

## 참여방법

## 1. 접수 방법

- 응모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hcknowin1@hanmail.net
- 팩스 접수: 033) 430-8790
- 홍천군노인복지관 방문접수

## 2. 응모내용

-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노년'을 생각하며 노인에 대해  
당당하고, 밝고, 긍정적인 표현 필수

## 3. 심사

- 아동부, 청소년부, 중년부, 장년부 별도 심사

\*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문의 : 홍천군노인복지관 | 김서연 주임 033-430-8717